

마을을 지키는 돌

제주의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돌들이 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도 있다. 이 돌들은 마을의 액운을 막아주기도 하고, 마을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돌이었다.



두신로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660-5 ~ 한경면 두모리 2464-1(약 1.6km)

신한로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48 ~ 한경면 두모리 1403-2(약 2.2km)

성굴로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02-7 ~ 한경면 신창리 994-3(약 1km)

판조로 |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36 ~ 한경면 조수리 1301(약 4.4km)

배낭골길 |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874 ~ 한경면 조수리 551-2(약 2.5km)

금등4길 |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631-3 ~ 한경면 금등리 390(약 1.6km)

두신로 | 고냉이돌



고냉이돌

두신로는 두모리와 신창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두모리(頭毛里) 주변은 비교적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일찍 모여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산리 일대를 두모라고 불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제주도의 서쪽을 머리로, 동쪽을 꼬리로 보고 서쪽 끝의 마을은 두모, 동쪽 끝의 마을은 종달이라 불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두모리 마을에 있는 팽나무 아래에는 고냉이돌이라고 불리는 마을의 상징석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 모양의 돌을 만들어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았다고 한다. 제주의 마을에는 액운을 막거나 마을을 상징하는 돌들이 있다. 이 돌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에 의미를 부여해 모시기도 하고, 탑 형태로 돌을 쌓아 방사탑과 같이 특별한 상징물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의 남자들이 힘 자랑을 했던 들돌은 마을의 자존심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마을의 상징석들은 신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을의 얼굴로써 자부심을 보여주면서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다.

신한로 | 해저유물

두신로에서 갈라지는 신한로는 신창리에서 한원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두 마을은 두모리에 속해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분리된 마을이다. 신창리(新昌里) 앞바다는 난파한 배에 실려있던 고려시대 해저유물이 발견된 곳이다. 탐라국 시대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 나라와 교역을 많이 했다. 무역선들이 제주로 향할 때는 깊은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도중에 풍랑에 휩쓸려 침몰하기도 했다. 신창리 앞바다의 유물들은 오랜 시간 바다에 잠들어 있다가 물질하던 해녀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신창리의 해저유물은 중국의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금제 장신구와 도자기, 고려청자들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하던 과거의 무역로를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은 옛날 동북아시아의 무역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성굴로 | 도구리 할망굴

성굴로는 신창리의 신흥동 마을의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신흥동에는 성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동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물 소리와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 되면 통나무로 만든 빨래통인 도구리를 진 할머니가 동굴에서 나와 언덕에서 빨래를 말리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구리 할망이 사는 동굴이라고 해서 도구리 할망굴이라고 부르면서 접근을 꺼려했다. 이 동굴의 물 소리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항상 들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물이 부족하게 되자 사람들은 동굴의 물이라도 사용하기 위해 동굴 입구를 뚫어버렸다. 그러자 물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보니 물이 흘렀던 자국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판조로/배낭골길/금등4길 | 판포리와 조수리, 금등리

판조로는 판포리와 조수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해안 마을인 판포리(板浦里)는 마을 지형이 판자같아 옛날에는 ‘너른개’ 또는 ‘널개’라고 불렸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는 ‘판을포’라고 불리기도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판포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이미 5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수리(造水里)는 1610년에 부임하던 제주목사의 친척이 함께 제주에 내려와서 용선달리라는 곳에 은거하여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창기 정착한 사람들은 농토를 조성해 농사를 짓고, 과원을 조성하여 관아에 진상하기도 했다. 이후 마을이 점점 커져 조호수리라고 부르다가 조수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수리는 조수, 대동, 배낭골, 중골 등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 배낭골마을은 옛날 이곳에 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판조로와 이어지는 배낭골길은 이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두모리와 판포리 사이에 있는 금등리(金騰里)는 원래 태우를 매어두는 포구 역할을 했던 한개라고 불리던 마을이다. 금등리라는 명칭은 90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두모리와 판포리 사이에 있어서 일설에 따르면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의 등(騰)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금등4길은 금등리의 이름을 반영한 이름이다.



판포포구